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정책 추진 방향

박승규 연구위원 이소영 연구위원





I. 대내외 인구변화 추이

1. 국외 인구변화 특성
2. 국내 인구변화 특성

II. 인구 현황 및 추이

III. 인구구성 요인 변화

1. 출산 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IV. 인구변화 원인

1. 혼인율 변화
2. 지역의 베드타운화
3.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진전

V. 광주시 인구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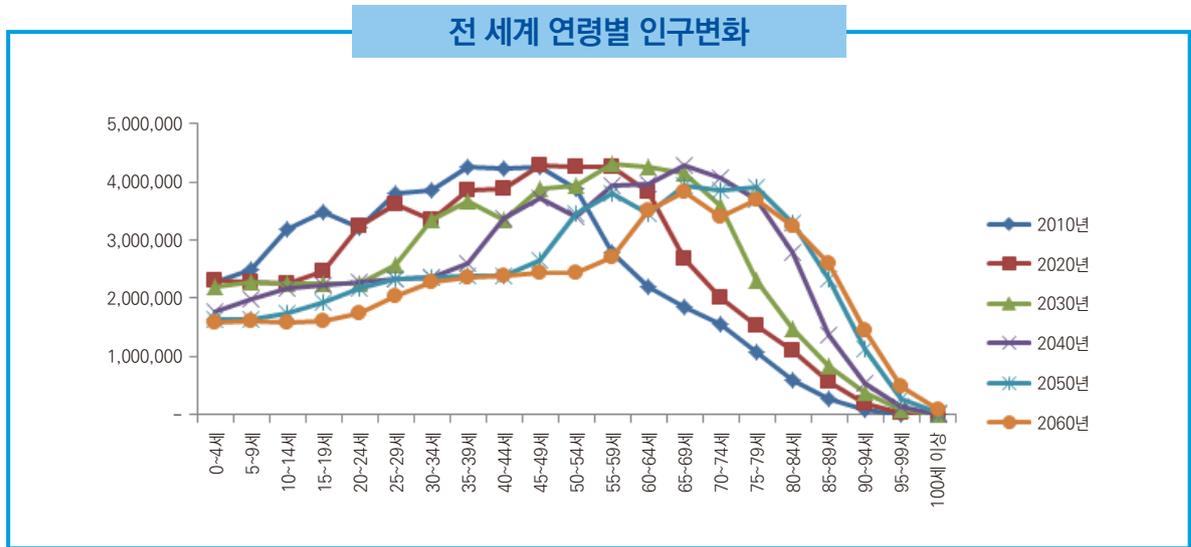
1. 지역간 연계를 통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정책 효과 극대화
 2. 보육과 일자리의 양립
 3. 고령친화 환경 조성 및 대체이민 확산 대응
 4. 인구감소 정책 수립을 위한 근원적인 현상 파악
-

I. 대내외 인구변화 추이

1 국외 인구변화 특성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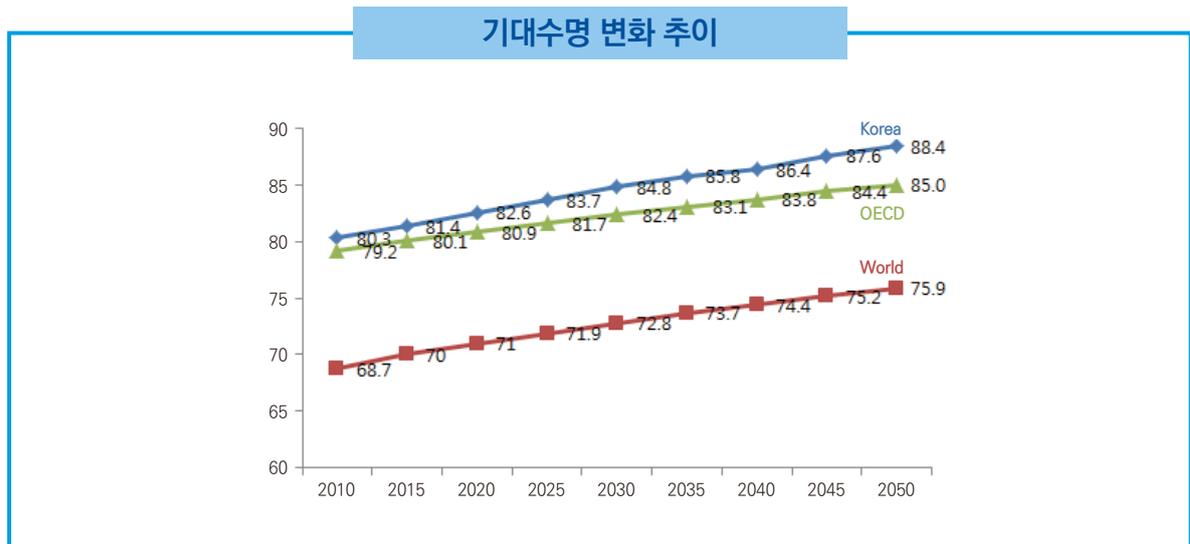
- 15세 이하 연소인구는 2010년 21.1%에서 2040년 11.2%로 9.9%p 감소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생산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직면
- 더불어, 15~64세 생산인구는 2010년 71.7%에서 2040년 56.5%로 15.2%p 감소하여 생산을 위한 인구가 감소
-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11.0%에서 2040년 31.8%로 20.8%p 증가함으로써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인구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



기대수명 변화

- 2040년 기대수명은 OECD 83.8세, World 74.4세인데 반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0년 80.3세에서 2040년 86.4세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

- 따라서, 중위연령이 2010년 31.8세에서 2040년 52.6세로 증가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은 2010년 10.1%에서 2040년 57.2%로 증가



2 국내 인구변화 특성

☑ 기대수명 변화

- 통계청(2016)에 의한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0년 80.3세에서 2040년 83.4세로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
- 여성의 기대수명은 88.2세로 남성의 기대수명 83.4세에 비해 6.9세 많은 것으로 추계 되었으며,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는 8.0%로 여성의 기대수명 증가 4.8%에 비해 크게 증가
- 수도권 2040년 기대수명은 87세로 2010년 81.1세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86.2세에 비해 수도권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대수명 변화 추이

(단위 : 년)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남성	77.2	78.2	79.3	80.4	81.4	82.5	83.4
여성	84.1	85.0	85.7	86.4	87.0	87.6	88.2
수도권	81.1	82.5	83.5	84.5	85.4	86.2	87.0
비수도권	80.1	81.4	82.6	83.6	84.6	85.4	86.2

연령별 기대수명 변화

- 2000년~2040년 연령별 기대인구는 0~9세, 10~19세, 20~29세 그리고 30~39세의 인구가 좌측으로 편향된(left skewed) 인구감소 성향을 나타냄
- 연령대별 인구 변화는 2040년까지 0~39세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40~49세는 큰 차이가 없지만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2040년의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대비 각각 58.6%, 146.9%, 51.0% 증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령대별 기대인구의 추세는 수도권은 60세 이하 기대인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기대인구는 수도권보다 많아 비수도권의 고령화가 보다 크게 진전
- 반면, 수도권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증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를 상회
- 반면, 통계청(2016)에 의한 2040년의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는 수도권의 0.89배(2000년 1.08배)로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

연령별 기대수명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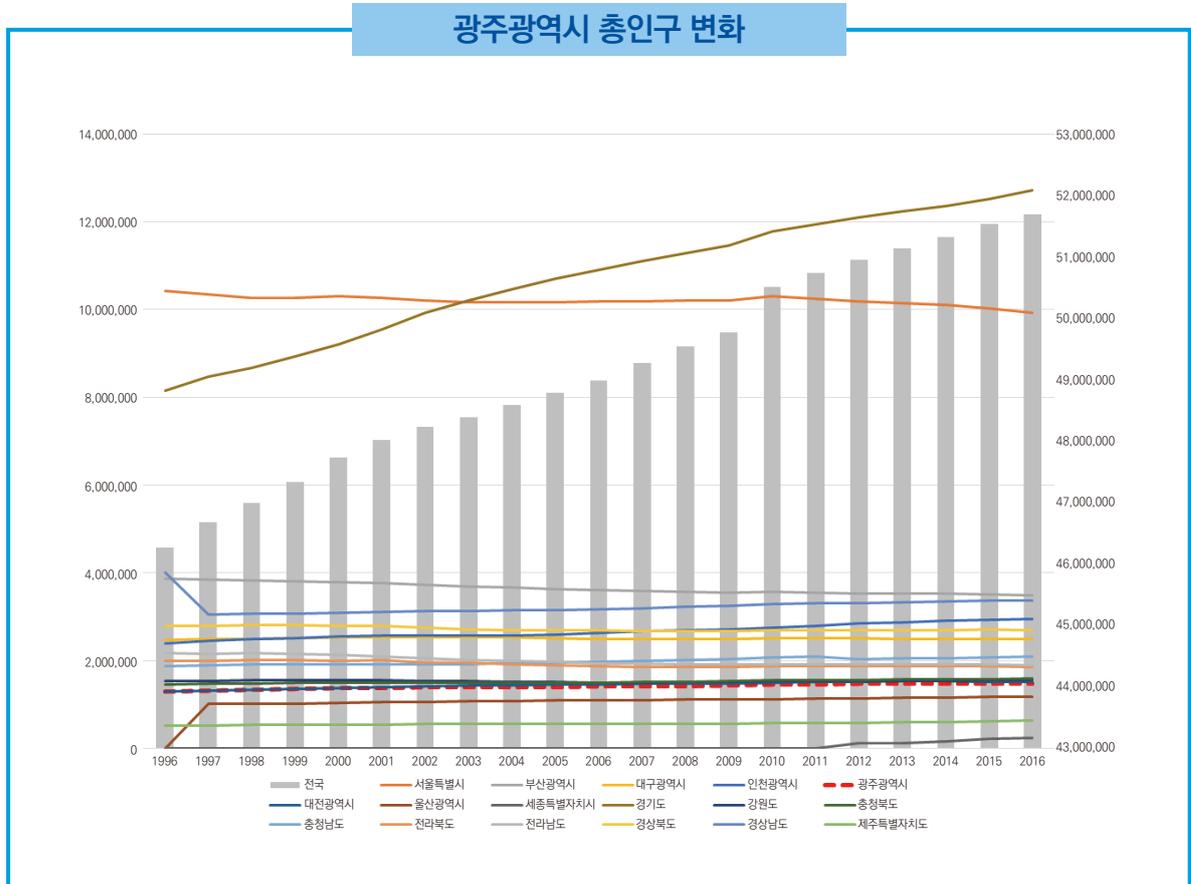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수도권	2000	3,221	3,140	4,013	4,259	3,284	1,922	1,207	698
	2010	2,392	3,208	3,665	4,355	4,328	3,206	1,806	1,379
	2020	2,349	2,310	3,546	3,872	4,166	4,170	3,007	2,268
	2030	2,290	2,247	2,538	3,713	3,667	4,012	3,910	3,767
	2040	1,903	2,177	2,443	2,633	3,524	3,537	3,794	5,496
비 수도권	2000	3,560	3,832	4,195	4,262	3,658	2,450	1,992	1,308
	2010	2,385	3,458	3,336	3,773	4,179	3,470	2,243	2,226
	2020	2,194	2,389	3,255	3,163	3,872	4,267	3,449	3,114
	2030	2,066	2,209	2,247	3,069	3,268	3,988	4,331	4,744
	2040	1,720	2,084	2,088	2,134	3,166	3,398	4,107	6,742

II. 인구 현황 및 추이

☑️ 광주광역시 총인구 변화

- 시도별 인구변화에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1996년 130만에서 2016년 146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6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비하여 인구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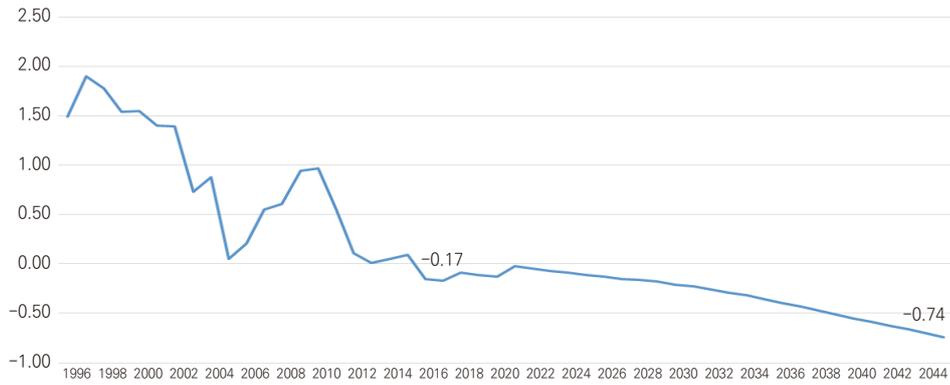


- 따라서 2000년부터 2015년 인구감소율 5% 이하, 노령인구 20% 이상, 3년 평균 생산 가능인구비율, 여성인구비율, 소득, 재정을 고려한 결과 광주 북구의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것으로 관측됨

✓ 광주광역시 인구성장률

- 광주광역시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약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타 광역시도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광역시이며, 인구성장률은 1996년 1.47%에서 2016년 -0.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는 -0.17% 이후로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44년에는 -0.74%로 하락할 것으로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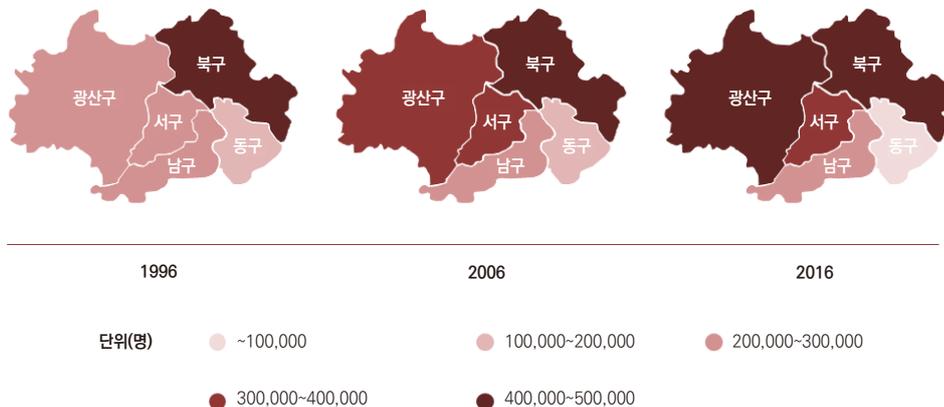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인구성장률(1996~2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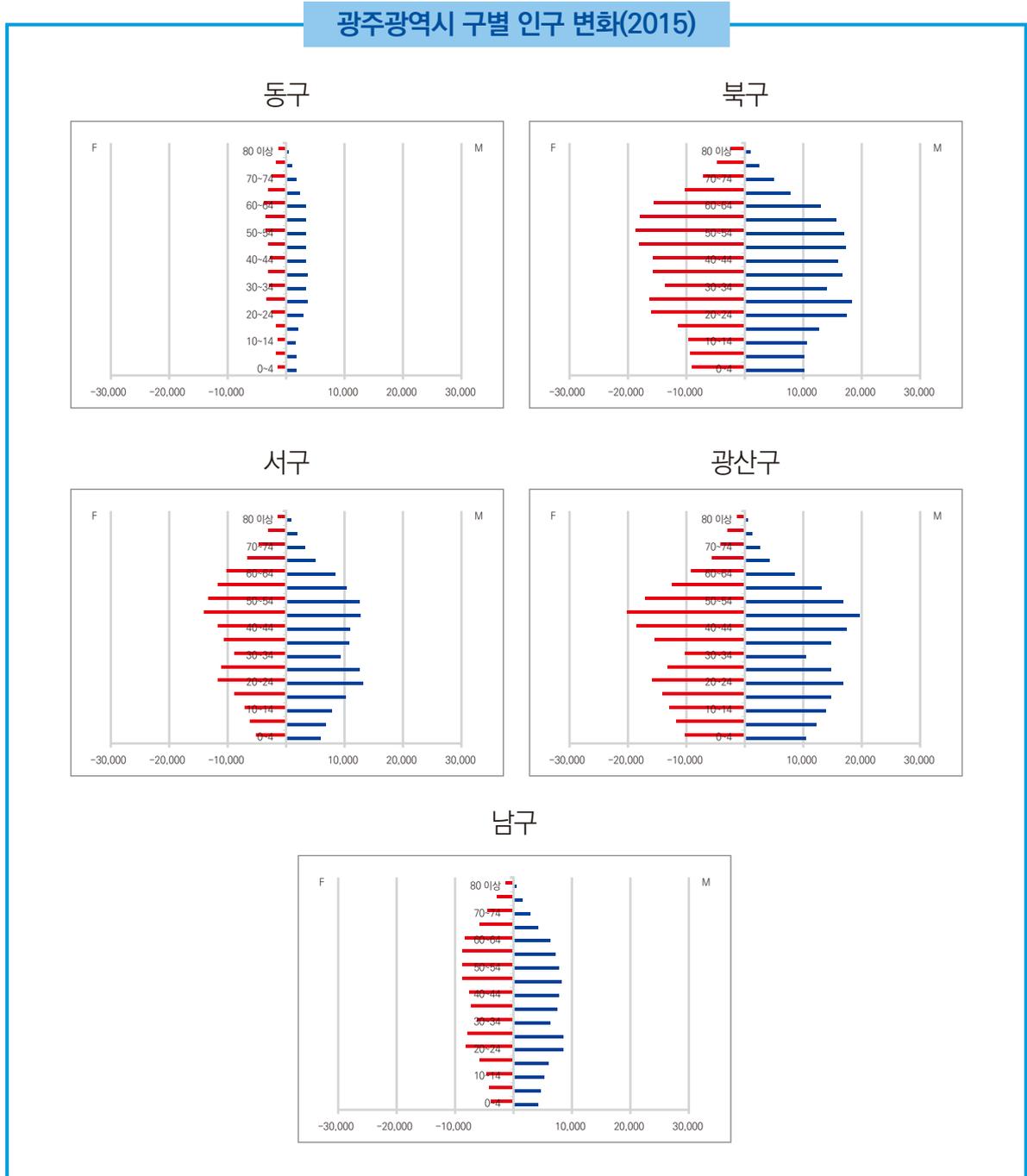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변화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총인구는 146만 명으로 구별 인구는 동구 95,791명, 서구 309,579명, 남구 219,729명, 북구 441,066명, 광산구 403,049명인 것으로 나타남
- 1996년 대비 2016년 구별 인구 변화는 동구 -35.7%, 서구 36.2%, 남구 -13.3%, 북구 -4.6%, 광산구 93.6%로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
 - 1996년 대비 2016년 서구와 광산구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구, 남구, 북구의 경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변화(1996/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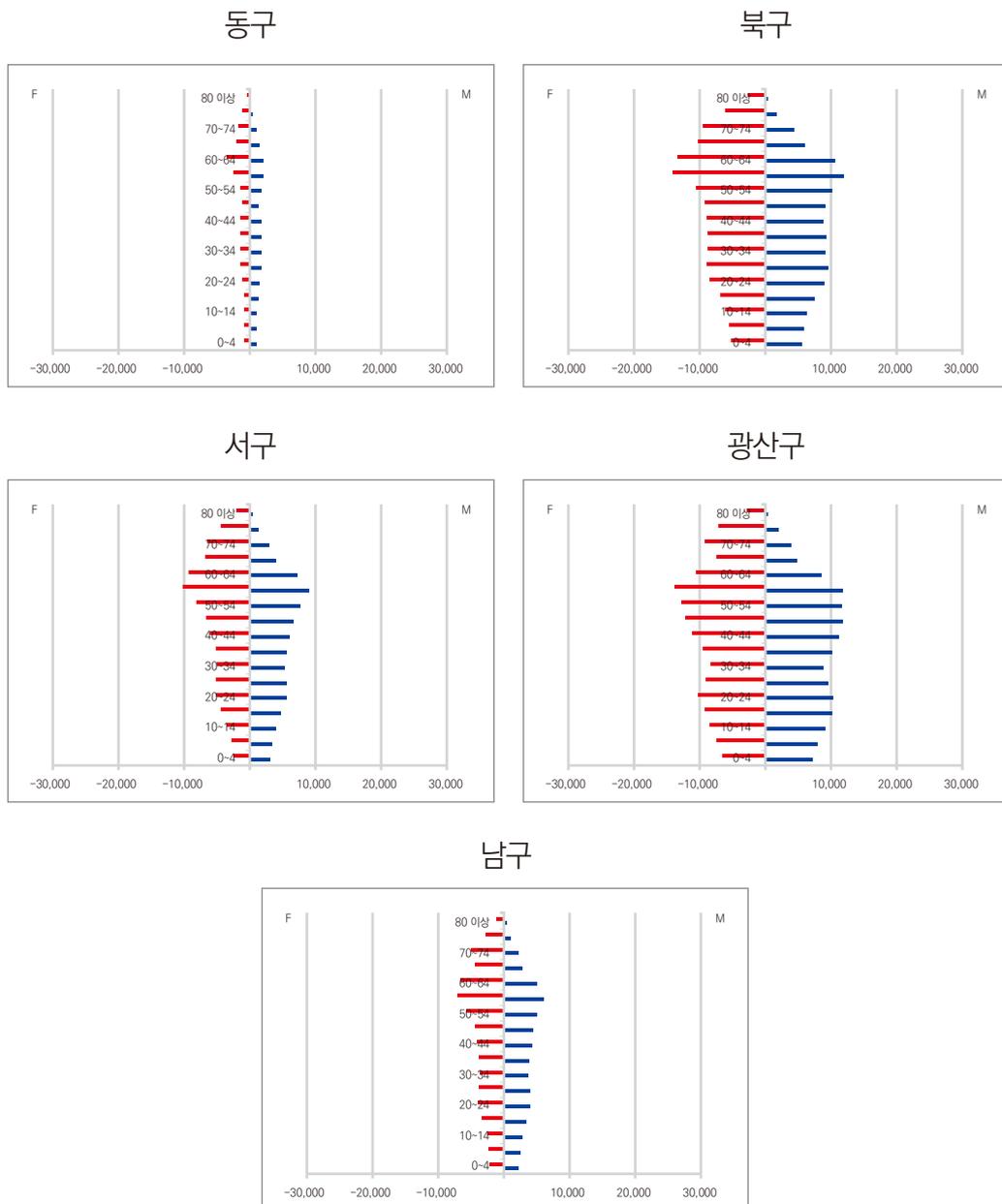


- 2015년 기준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는 북구>광산구>서구>남구>동구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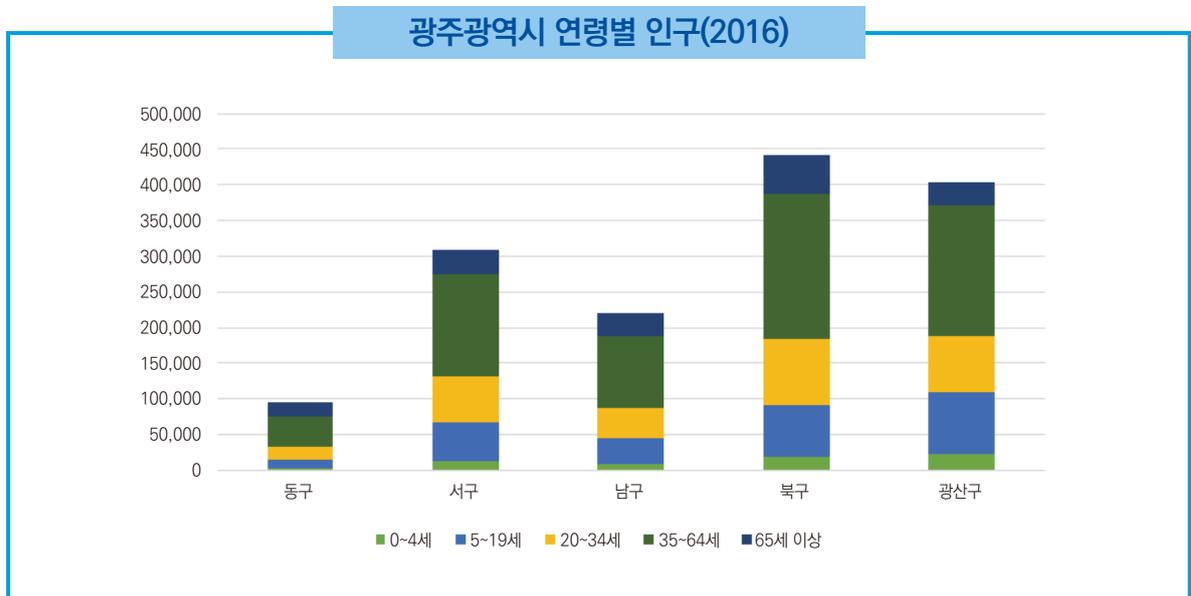
- 2050년 기준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는 광산구>북구>서구>남구>동구 순으로 광산구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으로써 북구의 인구 변화를 상회하여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변화(2050)



☑️ **광주광역시 연령별 인구**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연령별 인구는 0~4세 4.4%, 5~19세 17.9%, 20~34세 20.4%, 35~64세 45.5%, 65세 이상 11.7%인 것으로 나타남
- 구별 연령별 인구는 광산구의 5~34세 인구 비중이 4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동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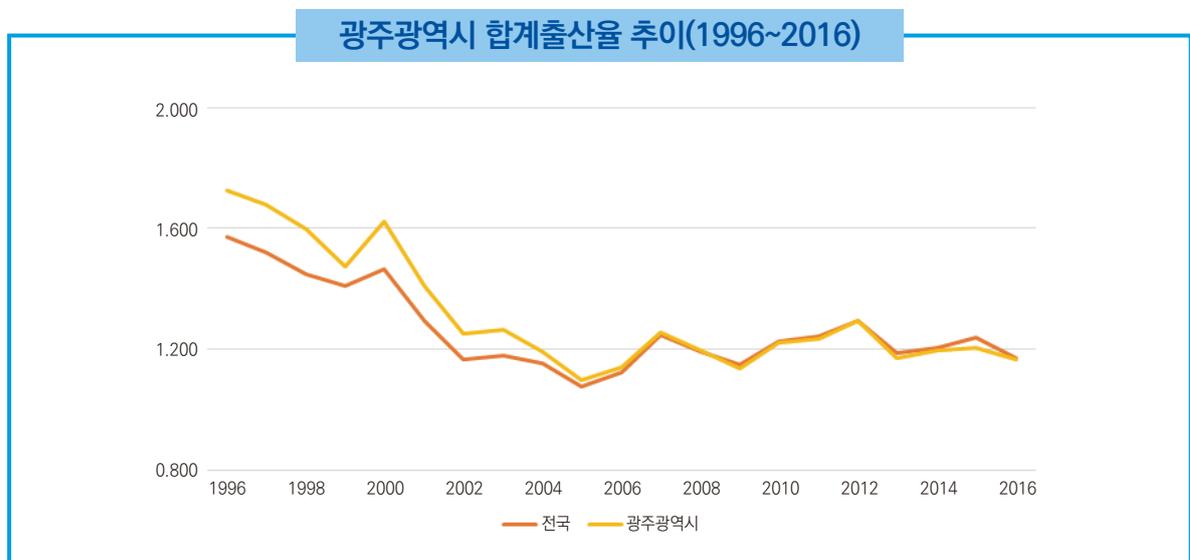


III. 인구구성 요인 변화

1 출산 현황

☑️ 광주광역시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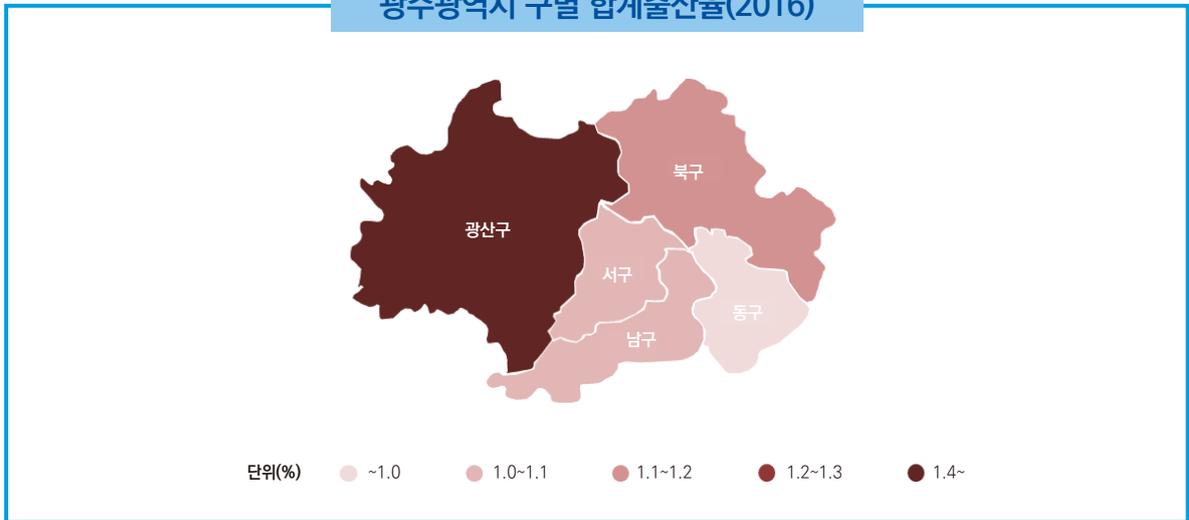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1996년의 여성 한 명당 1.726명에서 2005년 1.097명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1.168명으로 나타남
- 특히,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에 비해 낮은 합계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낮은 수준을 유지



☑️ 광주광역시 구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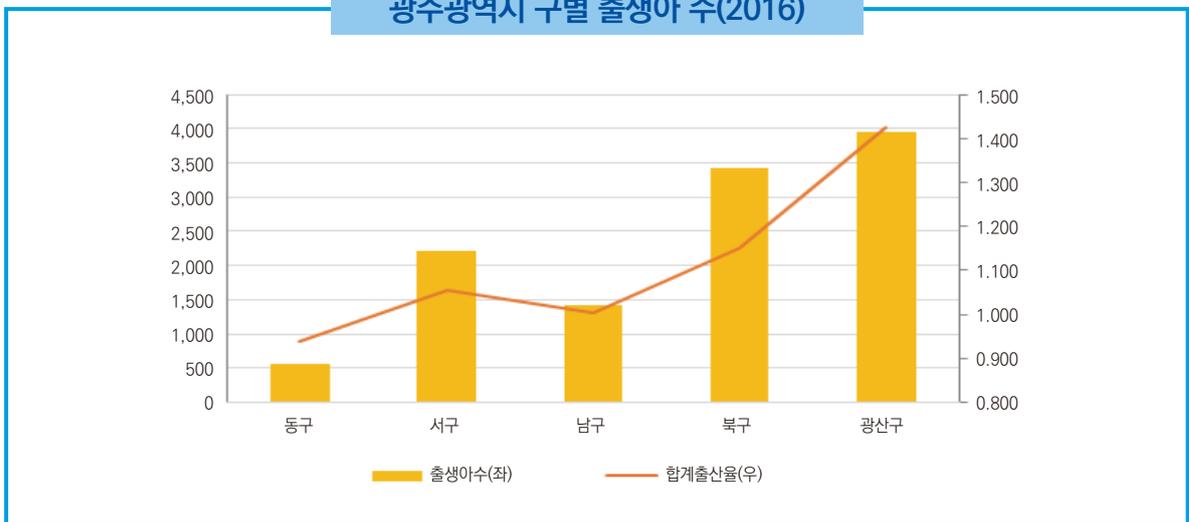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구별 합계출산율은 광산구가 1.42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구 1.152명, 서구 1.054명, 남구 1.002명, 동구 0.939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구 및 동구는 향후 생산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동인 부족에 직접적인 생산인구 감소 체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됨

광주광역시 구별 합계출산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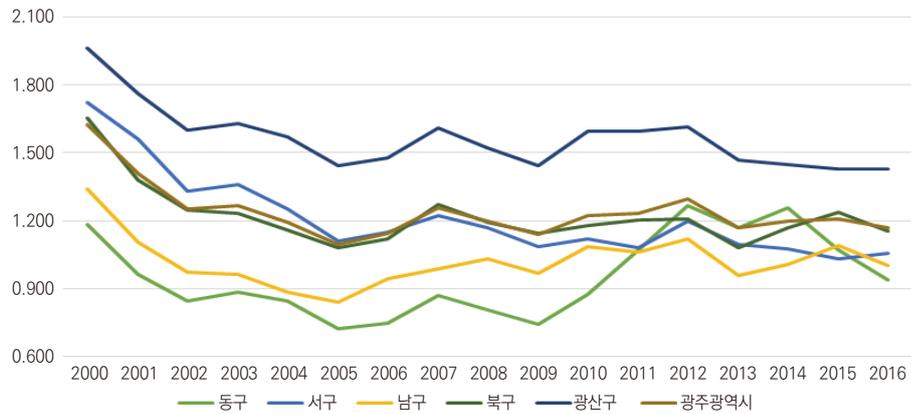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출생아 수는 총 11,580명으로 광산구 3,963명, 북구 3,437명, 서구 2,205명, 남구 1,416명, 동구 559명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출생아 수(2016)



- 광주광역시 구별 합계출산율 추이는 2000년 이래로 광산구가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동구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냄
 - 2000년 대비 2016년 합계출산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감소 폭이 적은 곳은 동구(-206%)로 나타났고 가장 감소 폭이 큰 곳은 서구(-38.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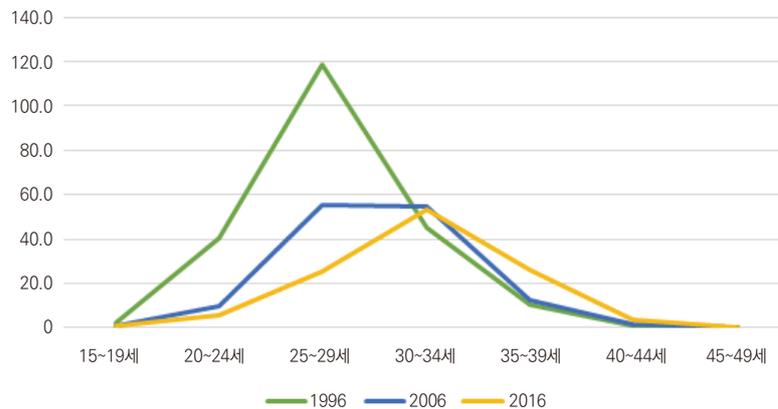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출산율(1996~2016)



광주광역시 연령별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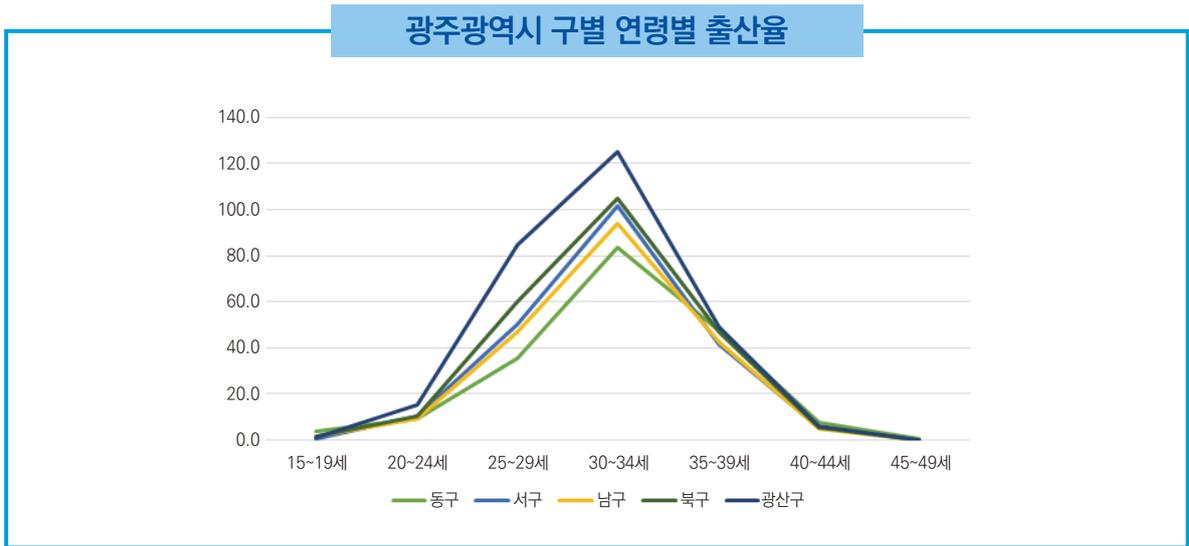
- 1996년 이후 20년 동안 광주광역시 가임기 여성의 출산 시기는 20대에서 30대로 늦춰졌으며, 광주광역시 여성의 20대 후반 출생아 수는 1996년 여성 천 명당 118.4명에서 2016년 25.4명으로 감소함

광주광역시 연령별 출생아 수(여성 천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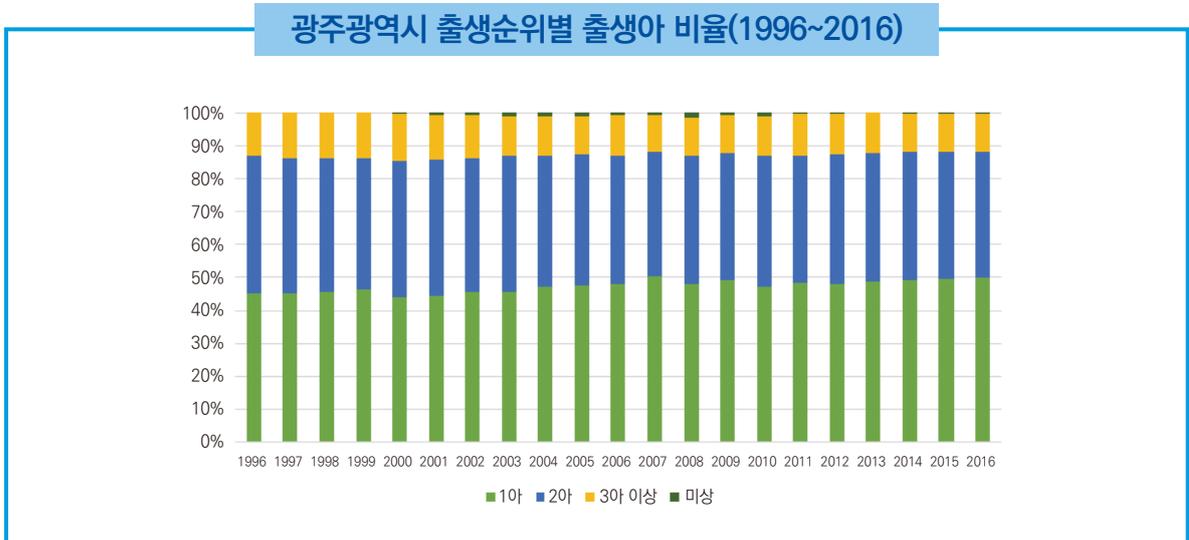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구별 연령별 출산율**

- 구별 연령별 가임기 여성의 천 명당 출산율은 광산구 30~34세 여성에서 125.3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구 30~34세, 서구 101.5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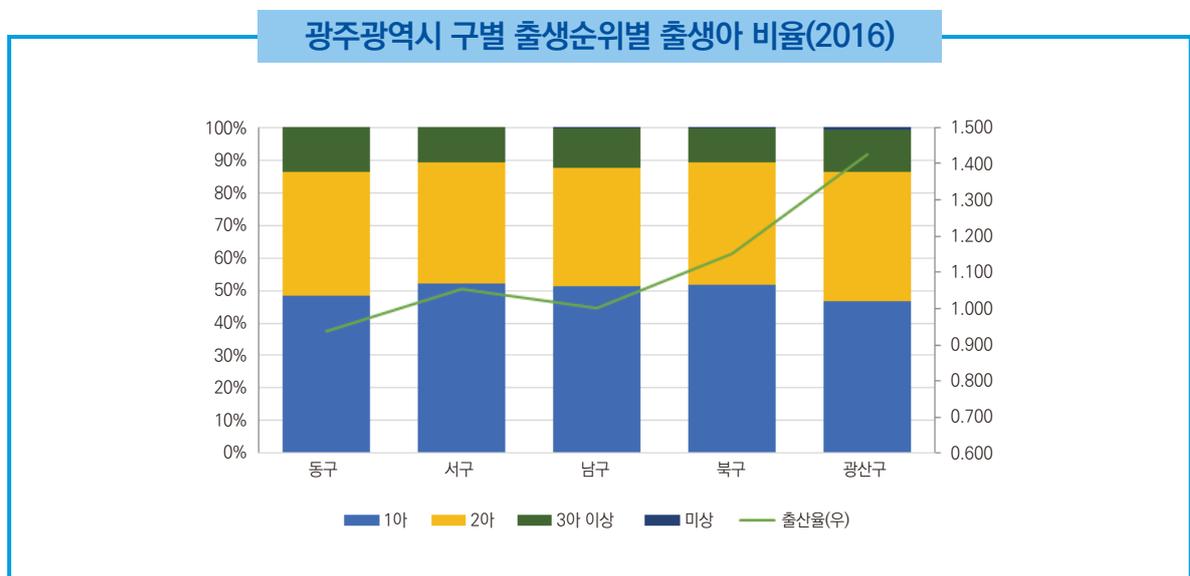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변화**

- 출생순위별로 광주광역시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율은 1996년 45%에서 2016년 50%로 증가하였으며 둘째아의 비율은 42%에서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구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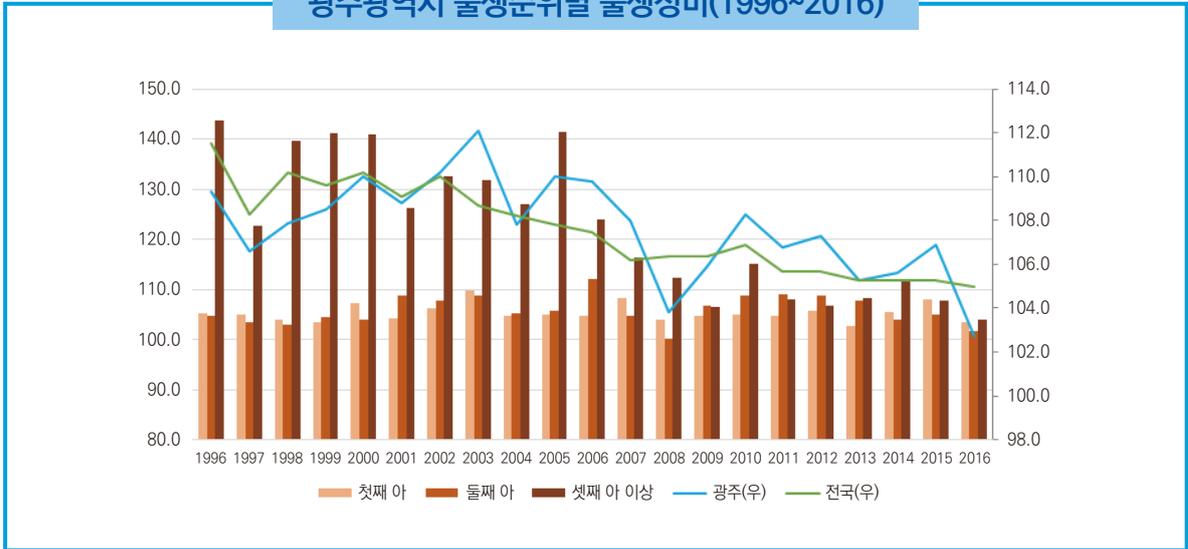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첫째아의 비율이 낮고 셋째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첫째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52.3%),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46.6%)로 나타났으며, 셋째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산구(13.1%), 가장 낮은 곳은 북구(10.4%)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출생순위별 출생성비(여아 백 명당)

- 광주광역시의 출생성비는 1996년 여아 백 명당 109.3명에서 2008년의 103.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2016년 102.7명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의 출생성비 하락은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 하락에 기인하며, 1996년 출생성비가 첫째아 143.8명에서 2016년 103.9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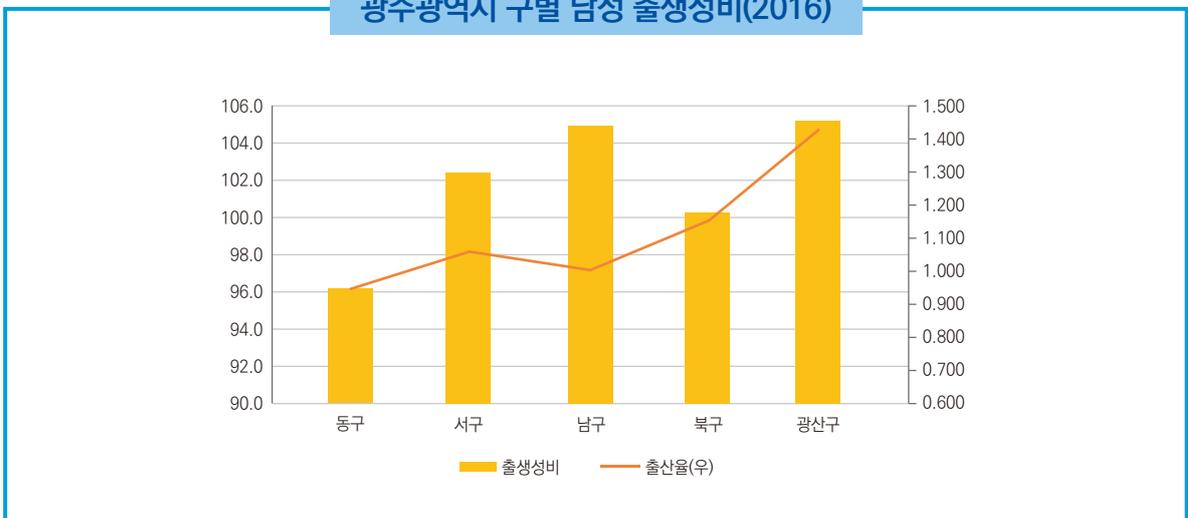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출생순위별 출생성비(1996~2016)



광주광역시 구별 남성 출생성비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 중 남성 출생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산구(105.2명)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동구(96.1명)로 나타남
 - 지역별로 남성 출생성비는 출산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반면, 전반적인 광주광역시의 남성 출생성비는 동구를 제외하고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산율이 상대적인 증가가 유지될 경우에 남성 출생성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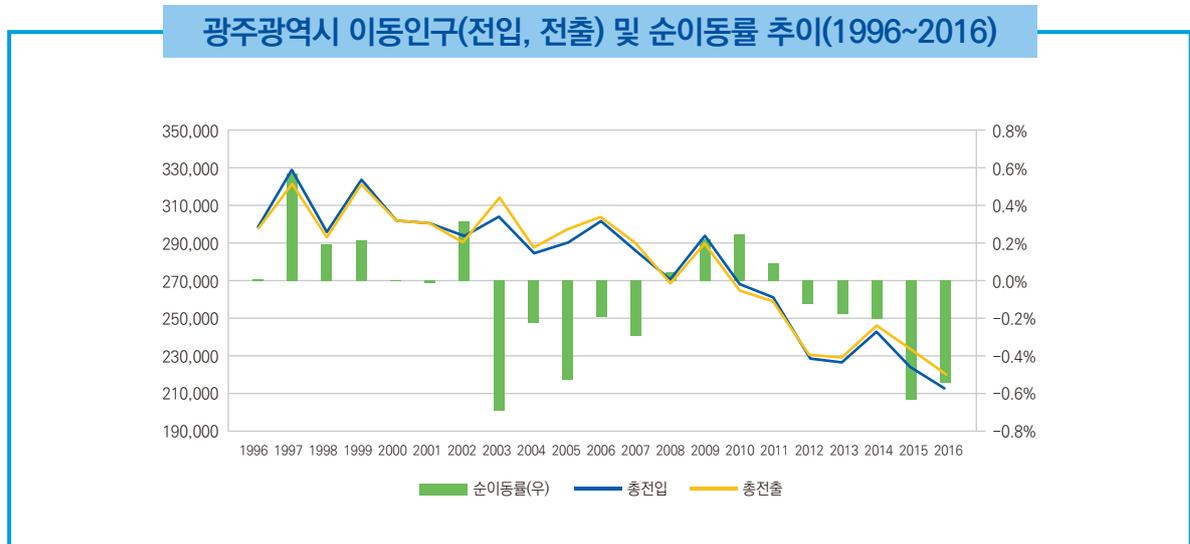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남성 출생성비(2016)



2 인구이동

☑️ 광주광역시 이동인구 및 순이동률 추이

- 광주광역시는 전출자와 전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의 순이동률이 0.6%를 기록하며 순이동(전입인구-전출인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순이동률이 -0.7%를 기록하며 순이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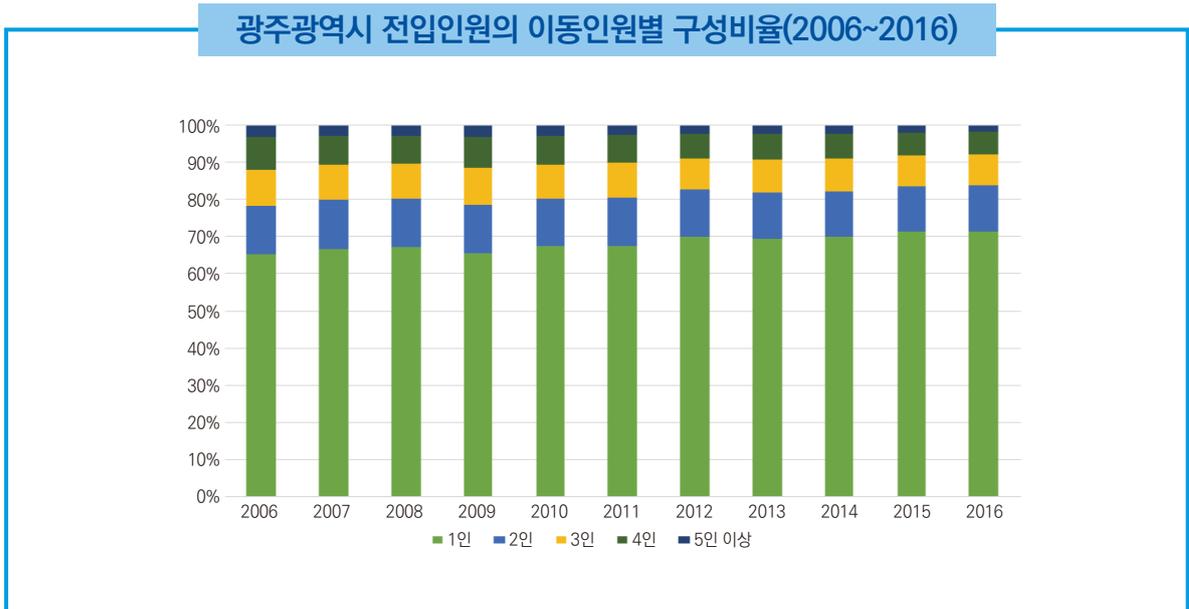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전출지별 순이동자 수

- 2016년 광주광역시의 전출지별 순이동자 수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특별시로 가장 많은 인원이 유출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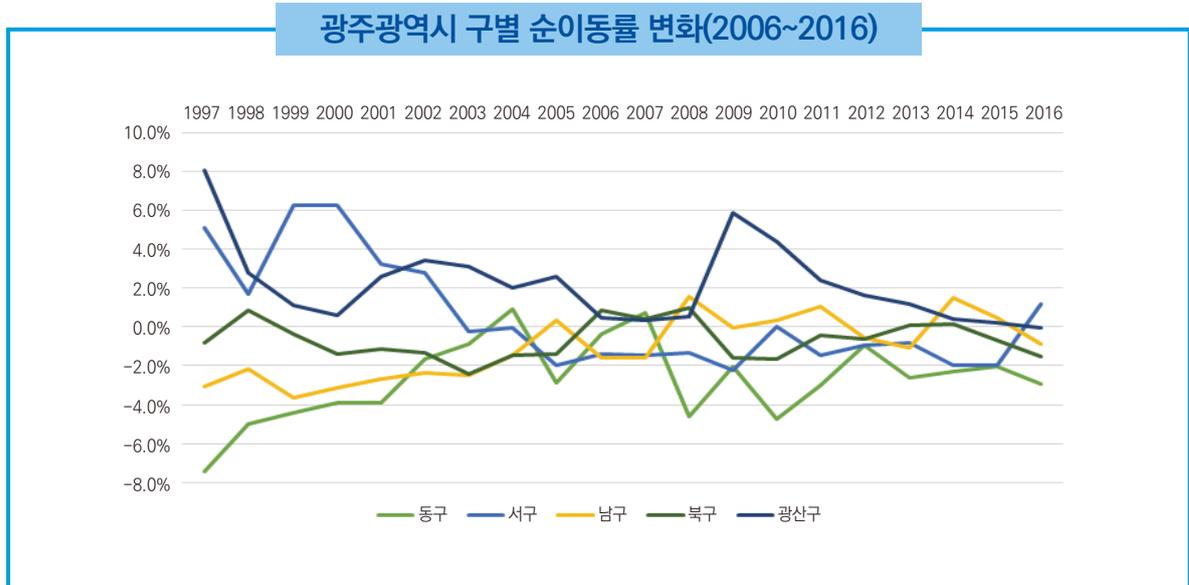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전입인원의 이동인원별 구성 비율

- 광주광역시 전입인원의 이동인원별 구성 비율은 1인 가구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광주광역시 전입인원의 1인 가구의 비율은 65.2%에서 2016년 71.5%로 증가



☑️ 광주광역시 구별 순이동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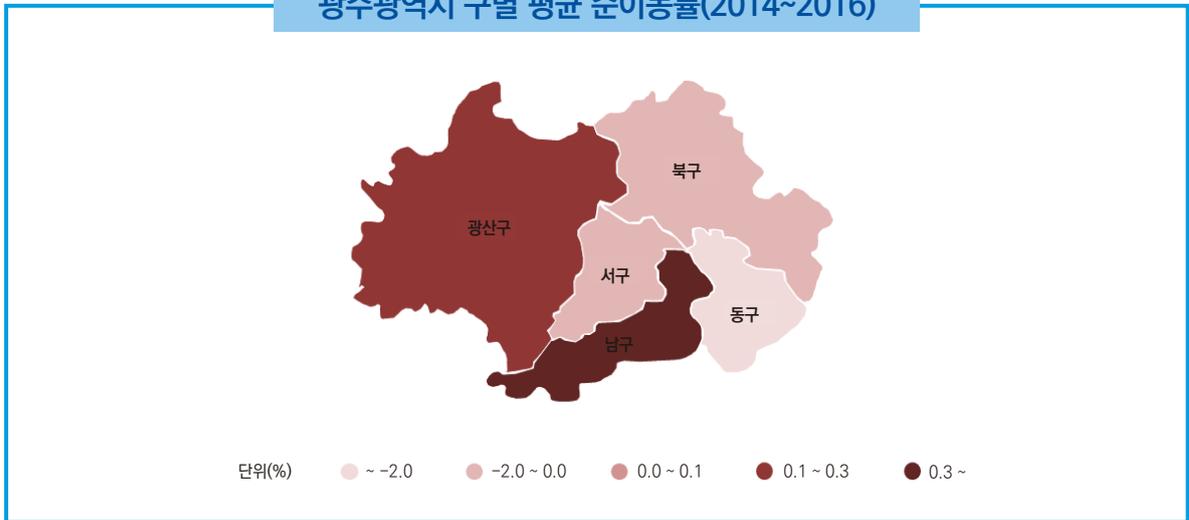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지역의 인구변화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순이동률 차이는 수렴하는 현상을 나타냄
 - 광산구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1997년 8%에서 2016년 -0.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구는 1997년 -7.4%에서 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2016년 -2.9%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구별 평균 순이동률

- 광주광역시 지역의 평균 순이동률은 남구와 광산구가 각각 0.38%, 0.19%로 인구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동구, 서구, 북구는 각각 -2.42%, -0.92%, -0.69%로 인구감소 추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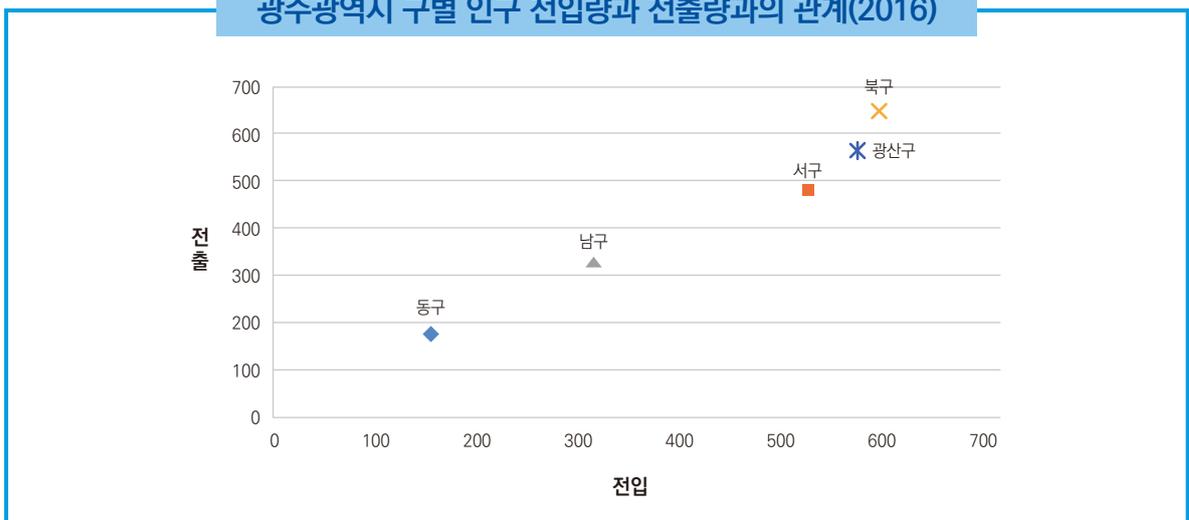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평균 순이동률(2014~2016)



☑️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전입량과 전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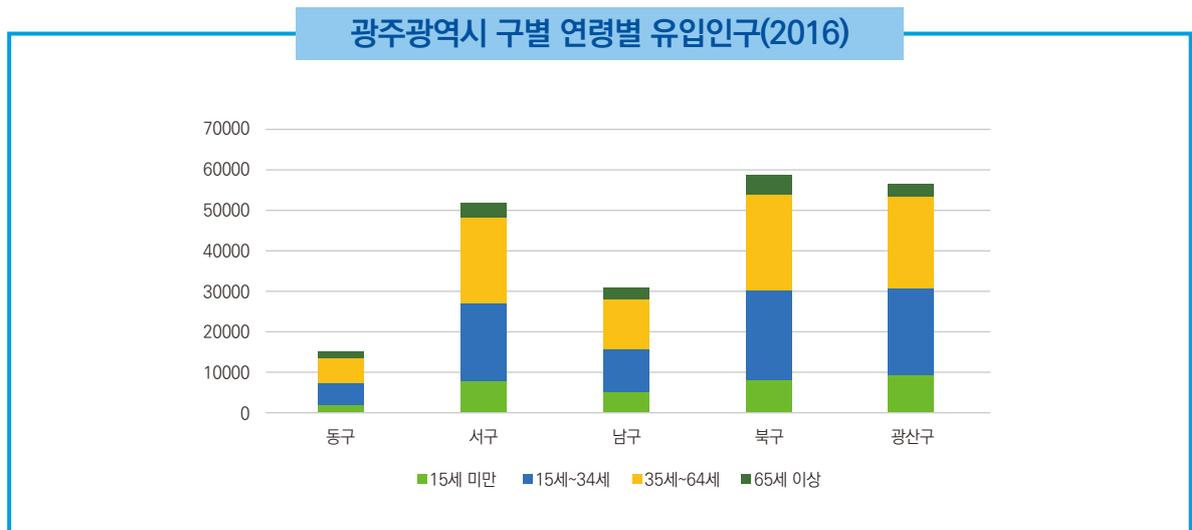
- 2016년 광주광역시 지역의 전입량과 전출량의 관계는 북구, 광산구, 서구가 전입량과 전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구와 남구는 전입량과 전출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인구 전입량과 전출량과의 관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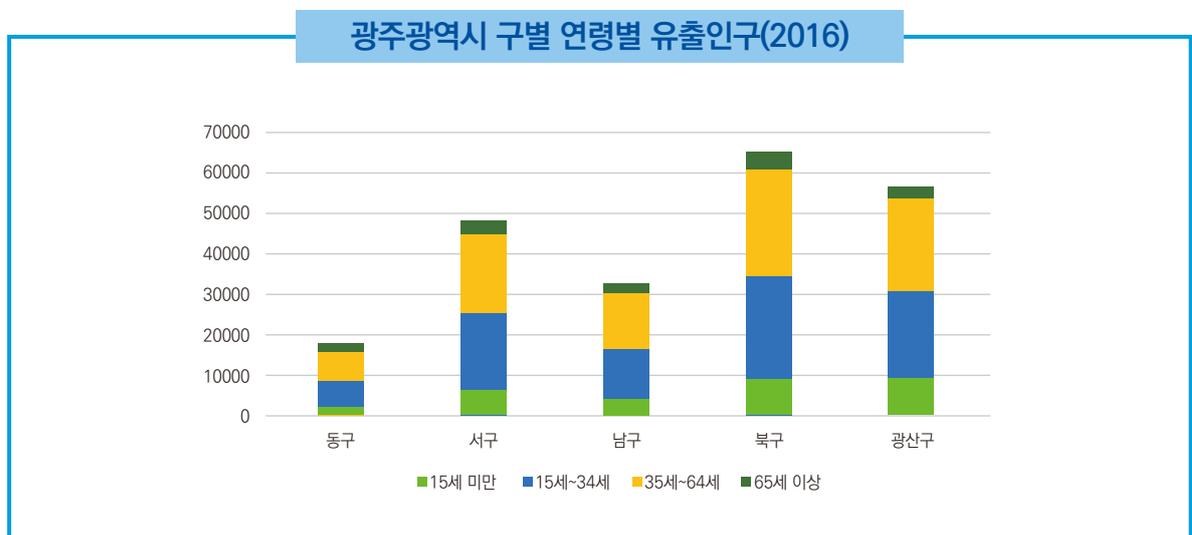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구별 연령별 유입인구**

- 2016년의 이동인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유입자와 유출자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전입량과 전출량이 많은 서구, 북구, 광산구의 경우 15~34세, 35~64세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구별 연령별 유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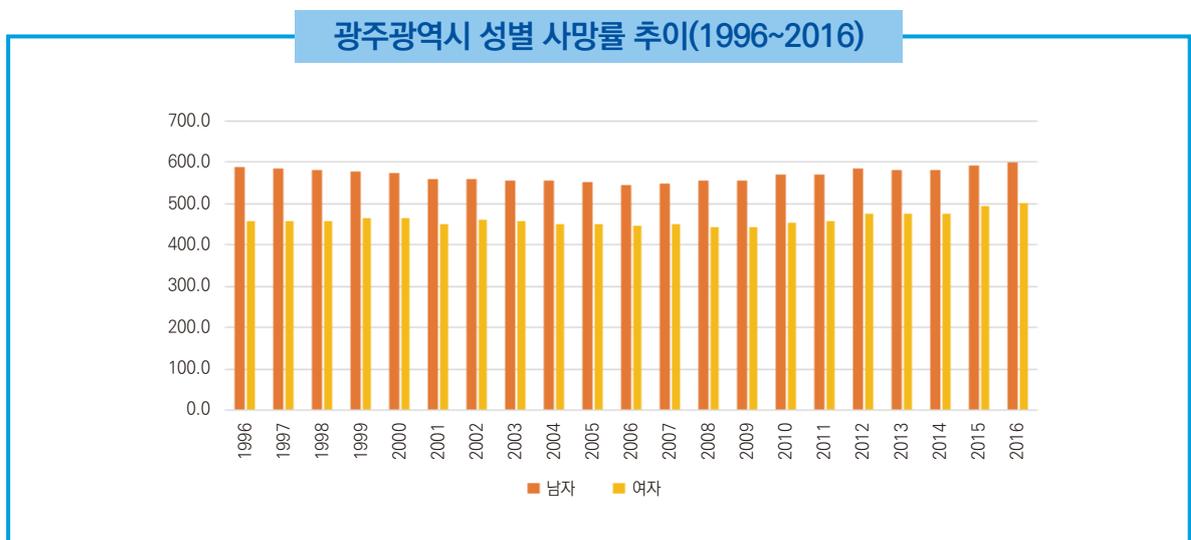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지역별 연령별 유출인구는 북구의 35~64세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34세 인구도 북구의 유출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사망

광주광역시 성별 사망률 추이(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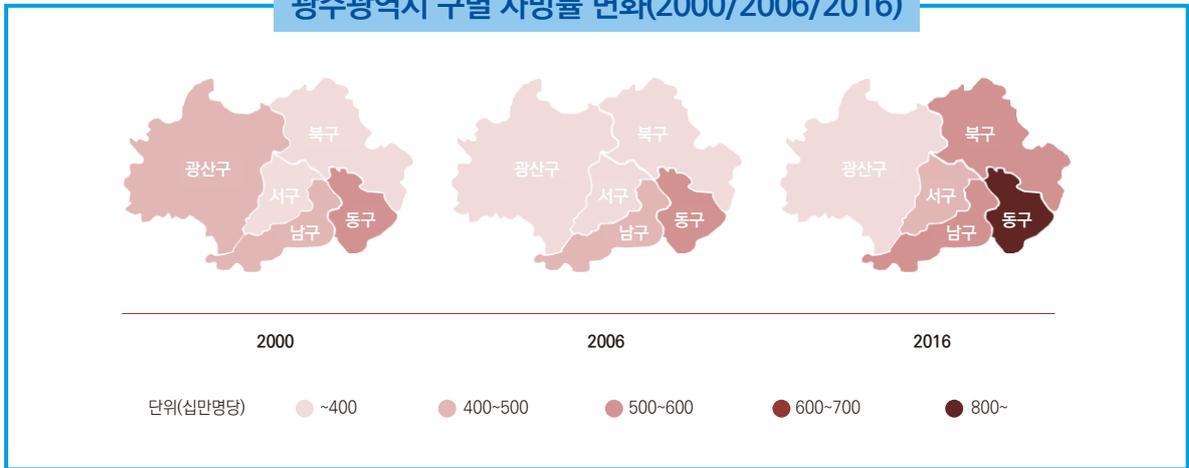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사망률은 1996년 남성 589.1명, 여성 457.3명에서 2016년 597.5명, 501.5명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사망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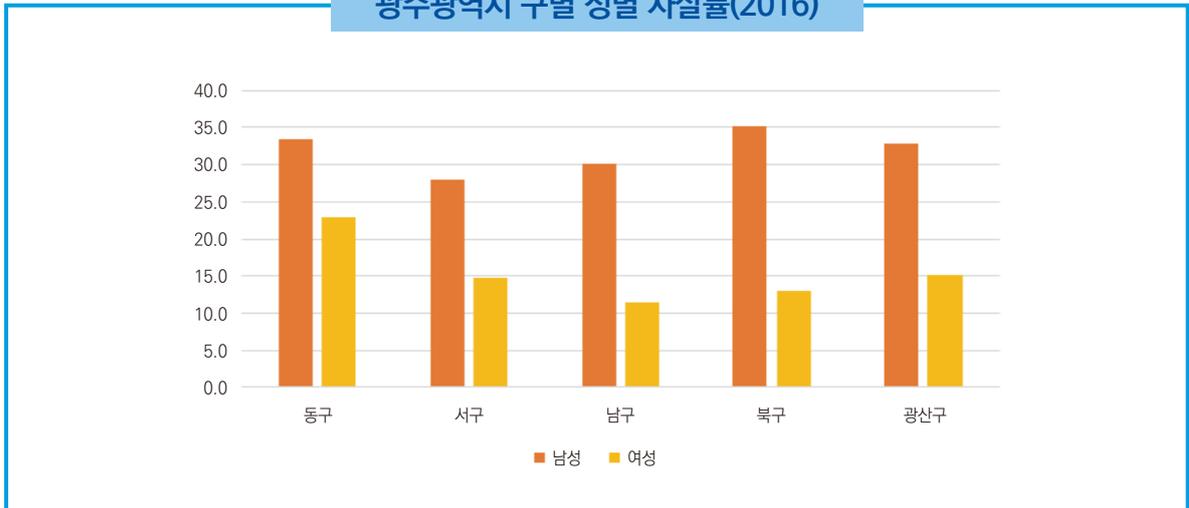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지역별 사망률 변화는 2000년 대비 2016년 광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동구(54.2%)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별 사망률은 동구가 83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구 553.0명, 북구 503.5명, 서구 467.0명, 광산구 397.0명 순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사망률 변화(2000/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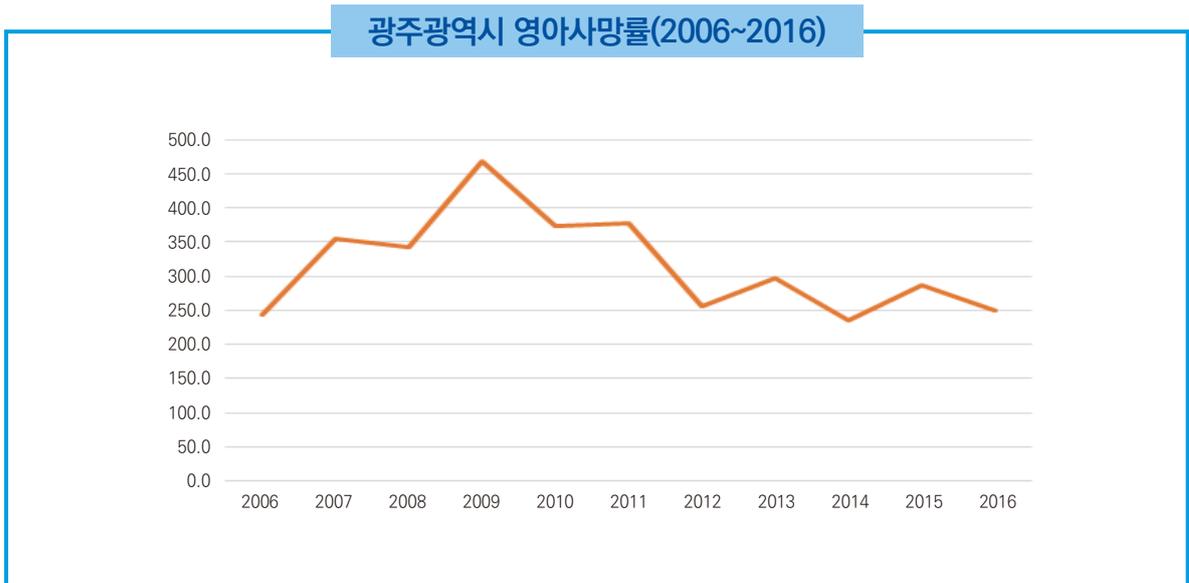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북구 남성이 3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는 28.0명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동구가 23.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남구가 11.5명으로 가장 적은 자살률을 나타냄

광주광역시 구별 성별 자살률(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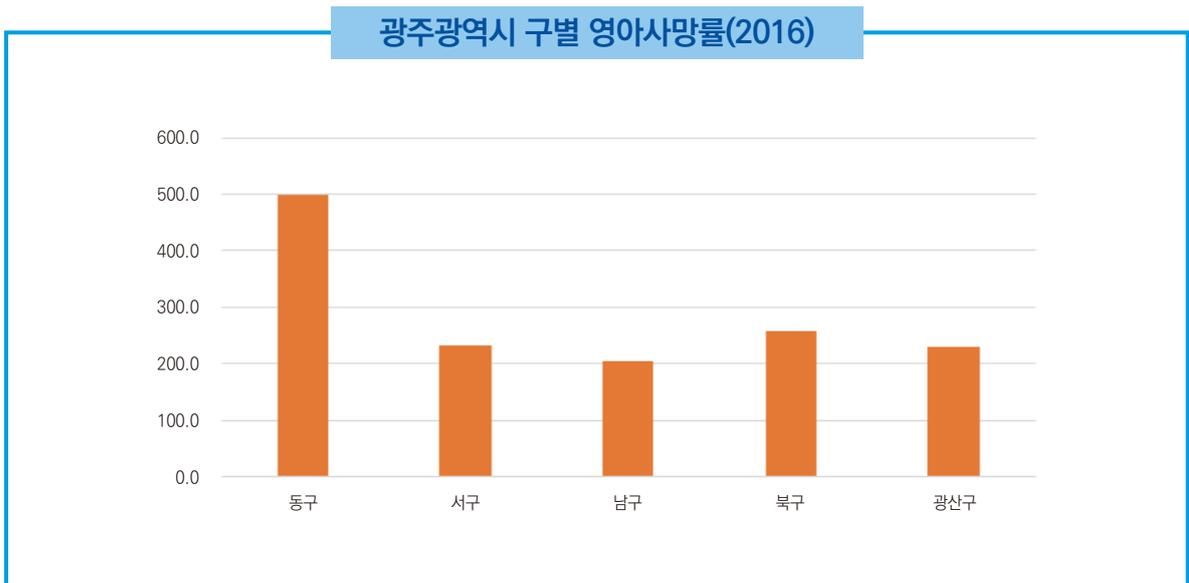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영아사망률(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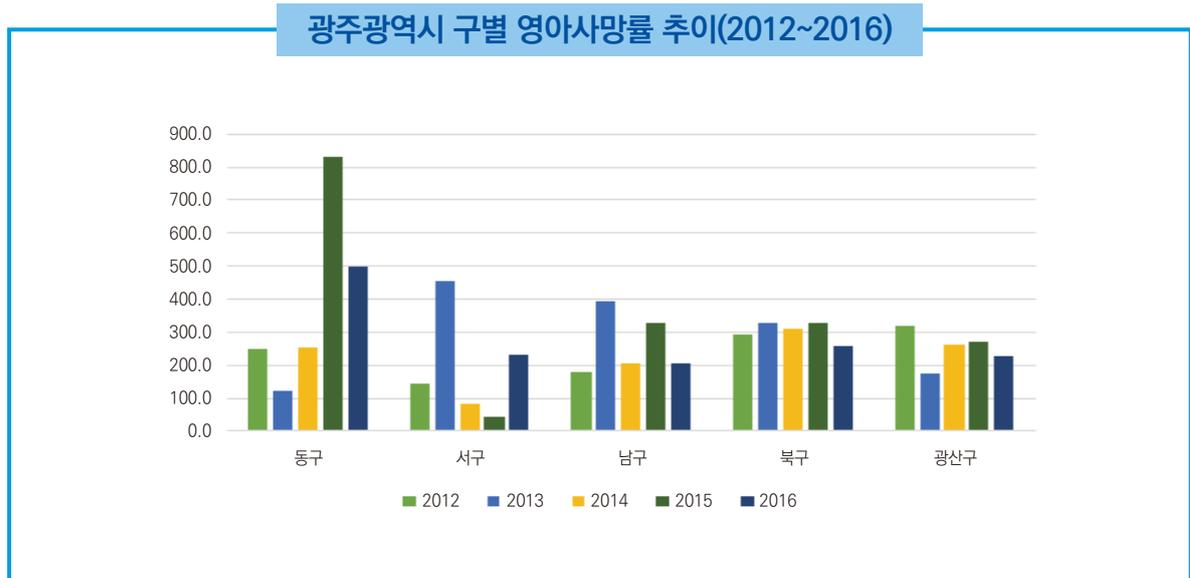
- 2016년 광주광역시의 영아사망률은 영아 십만 명당 249.2명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별 영아사망률은 동구가 49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지역은 200명 수준인 것을 나타남



- 광주광역시 지역별 영아사망률 추이는 2012년 대비 2016년 영아사망률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동구(9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구(61.1%), 광산구(-27.8%) 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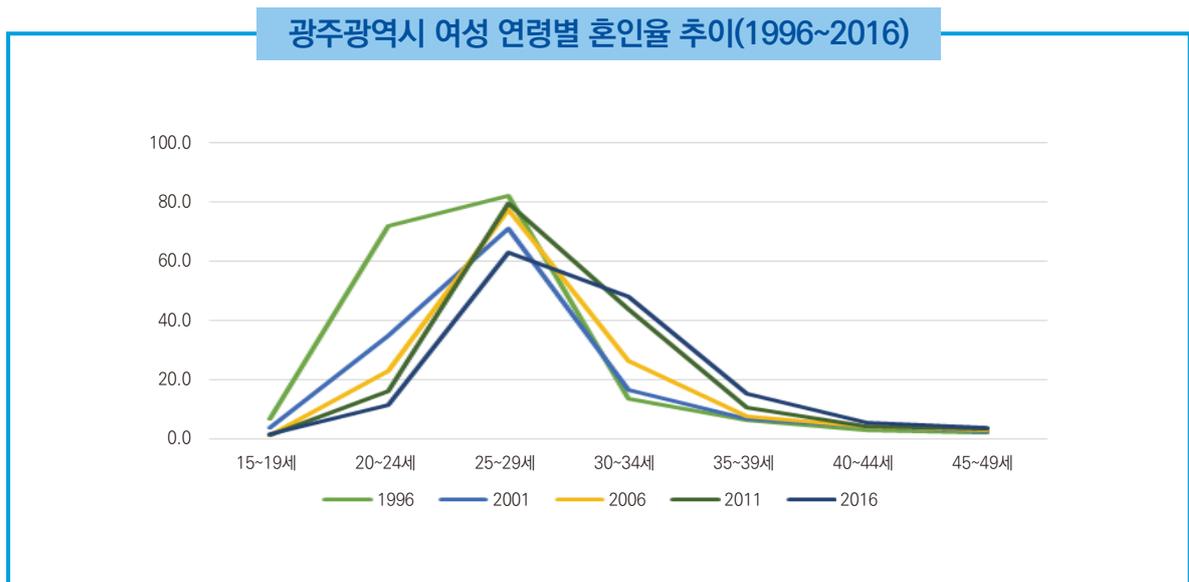


IV. 인구변화 원인

1 혼인율 변화

☑️ 광주광역시 여성 연령별 혼인율 추이(여성 천 명당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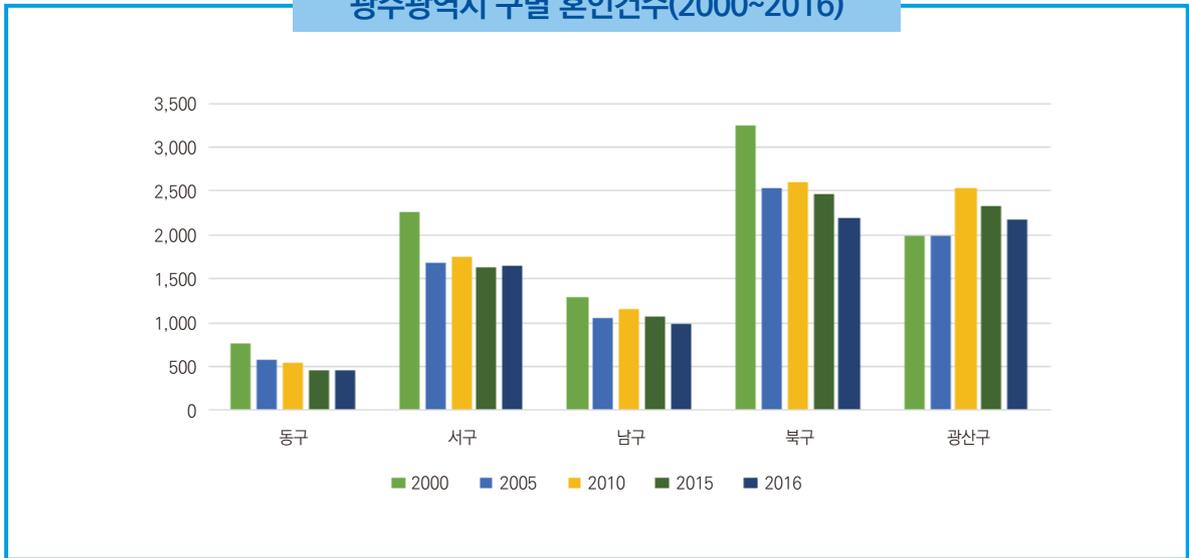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여성 연령별 혼인율 추이는 1996년 20대에서 2016년 30대로 만혼이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 20~24세 혼인율이 현저히 감소한 데 반해 30~34세 혼인율은 증가하여 혼인 연령이 점차 만혼 형태로 변화됨



☑️ 광주광역시 구별 혼인건수

- 광주광역시 구별 혼인건수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대비 2016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동구(-41%)로 나타났으며, 광산구(9%)의 경우 유일하게 혼인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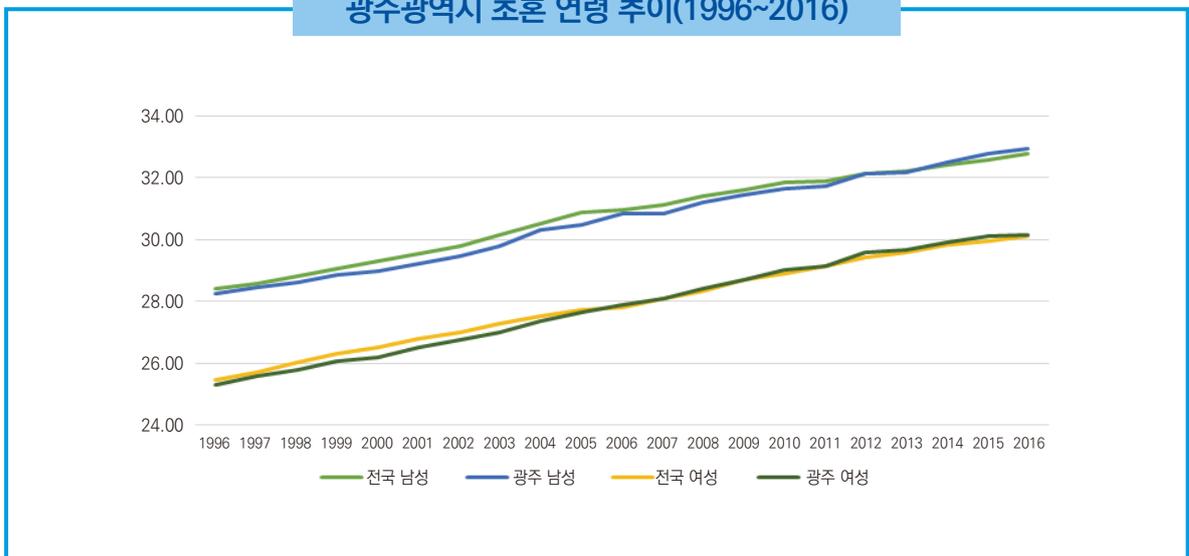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혼인건수(2000~2016)



☑️ 광주광역시 초혼 연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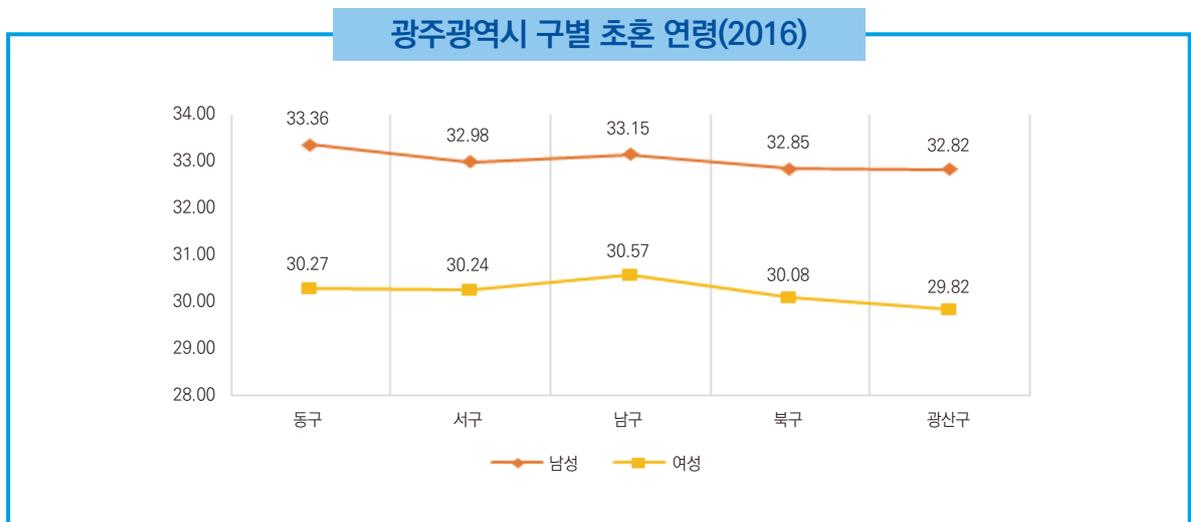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상승 폭을 유지함
 - 1996년 광주광역시 여성의 초혼 연령은 25.3세에서 2016년 30.14세로 상승했고, 동 기간 광주광역시 남성의 초혼 연령은 28.26세에서 32.94세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6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6년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초혼 연령 추이(1996~2016)



☑️ **광주광역시 구별 초혼 연령**

- 2016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별 남성의 초혼 연령은 동구(33.36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초혼 연령은 남구(30.57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남성의 초혼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산구(32.82세)로 나타났고 여성의 초혼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산구(29.82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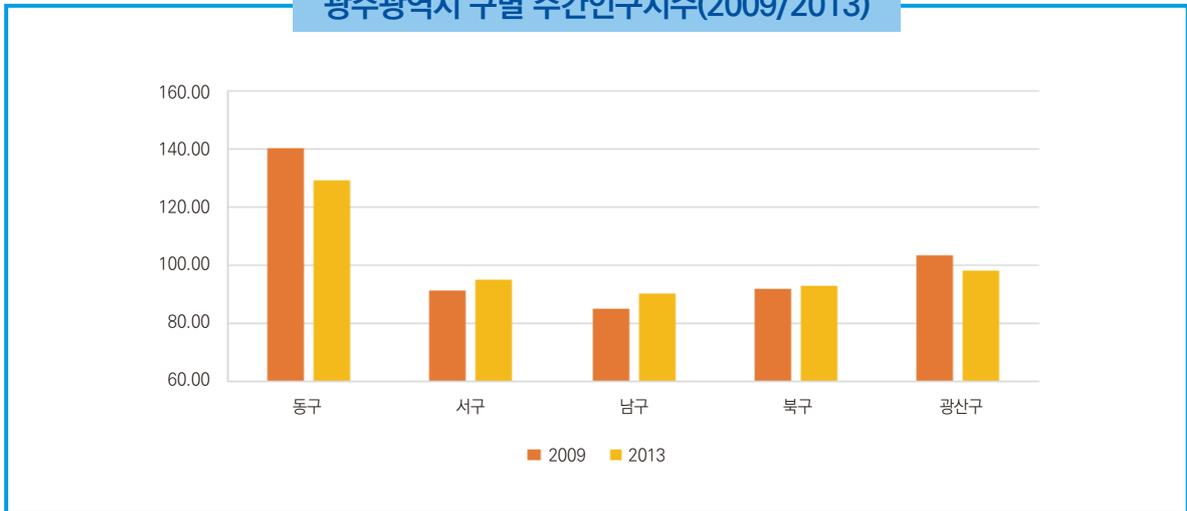


2 지역의 베드타운화

☑️ **광주광역시 구별 주간인구지수**

- 한국도시통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지역의 주간인구지수는 2009년 102.29에서 2013년 101.02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구가 2009년 140.14에서 2013년 129.18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냄
- 2013년 기준 동구를 제외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활동성을 규정하는 주간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생산 활동이 감소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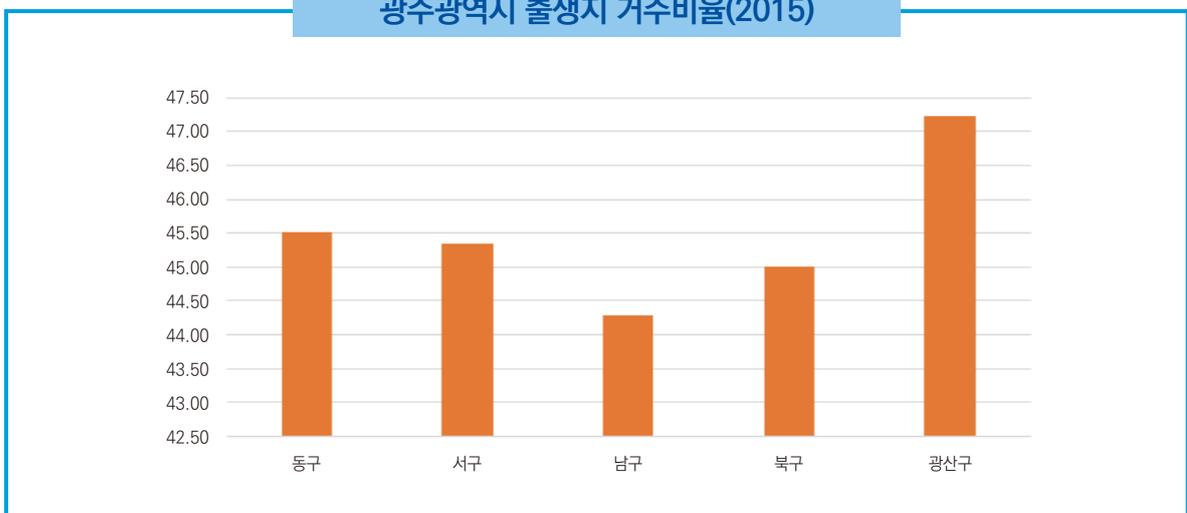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구별 주간인구지수(2009/2013)



☑️ 광주광역시 출생지 거주비율

- 더불어, 2015년 광주광역시의 지역별 출생지 거주비율은 광산구가 47.22%로 광주광역시 지역 중 가장 높은 출생지 거주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동구, 서구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남구의 경우 출생지 거주비율이 44.3%로 나타나 광주광역시 지역 중 가장 낮음
 - 따라서, 출생지와 거주지와의 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광주광역시의 인구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이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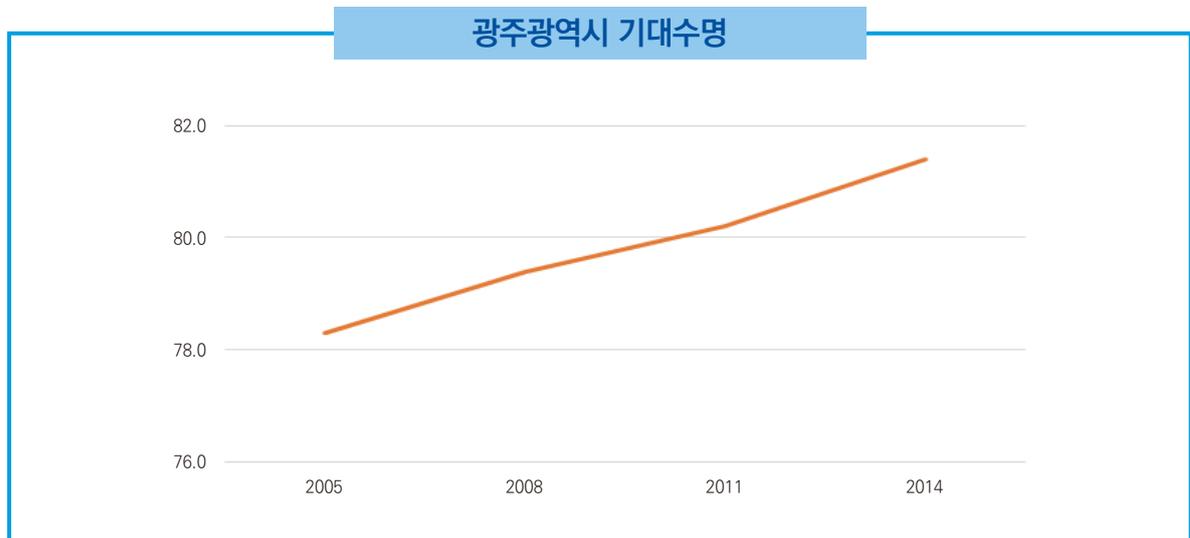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출생지 거주비율(2015)



3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진전

✓ 광주광역시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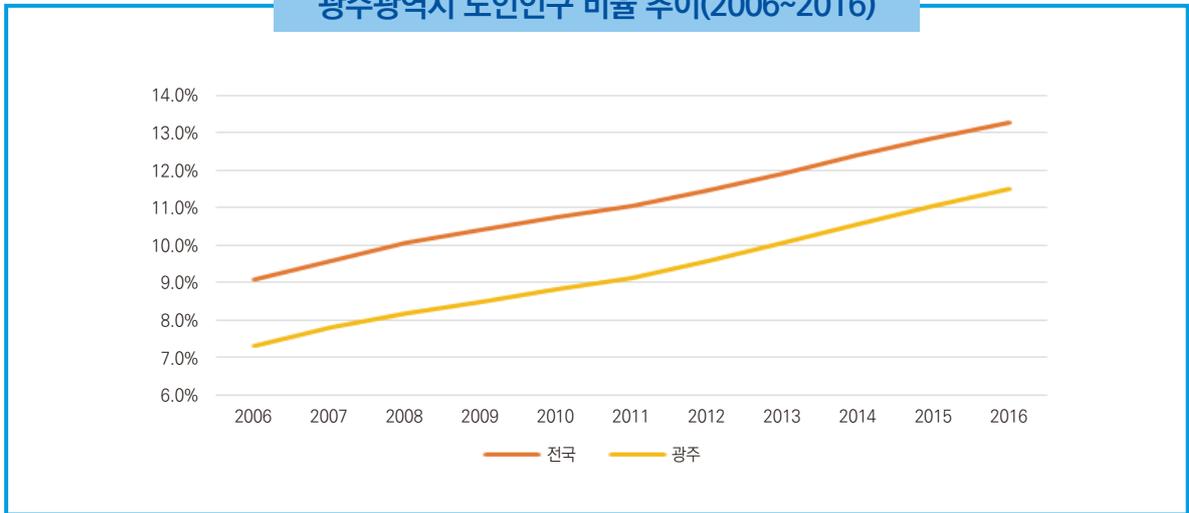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200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78.3세에서 2014년 81.4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OECD 및 전 세계 기대수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장수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한편 생산능력이 감소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구분됨



✓ 광주광역시 노인인구 비율 추이

- 광주광역시 노인인구 비율은 2006년 7.3%에서 2016년 1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음
 - 더불어, 동 기간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2006년 9.1%에서 2016년 13.3%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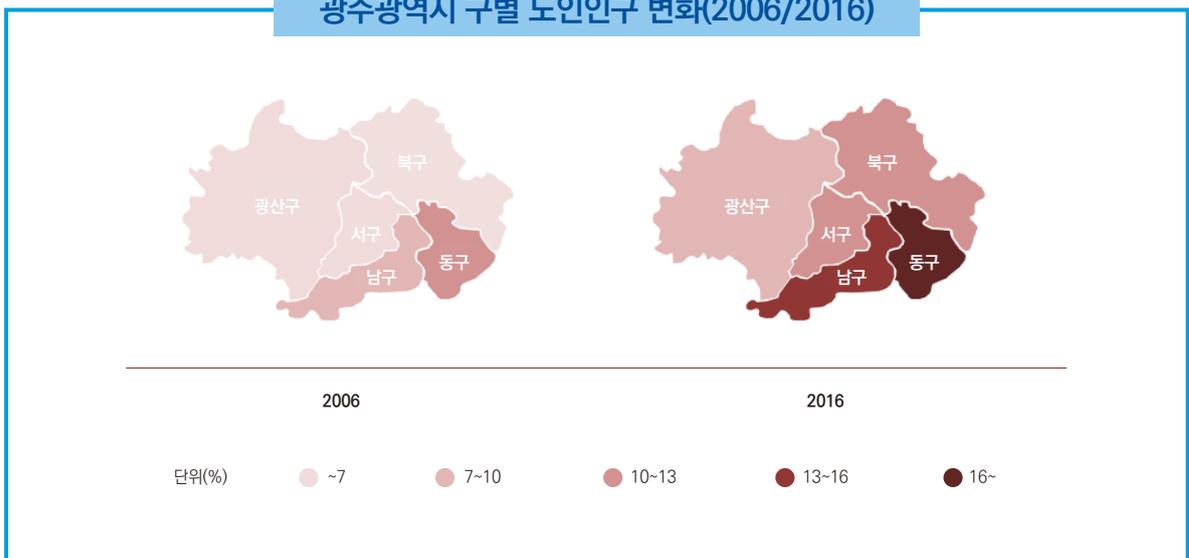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노인인구 비율 추이(2006~2016)



광주광역시 구별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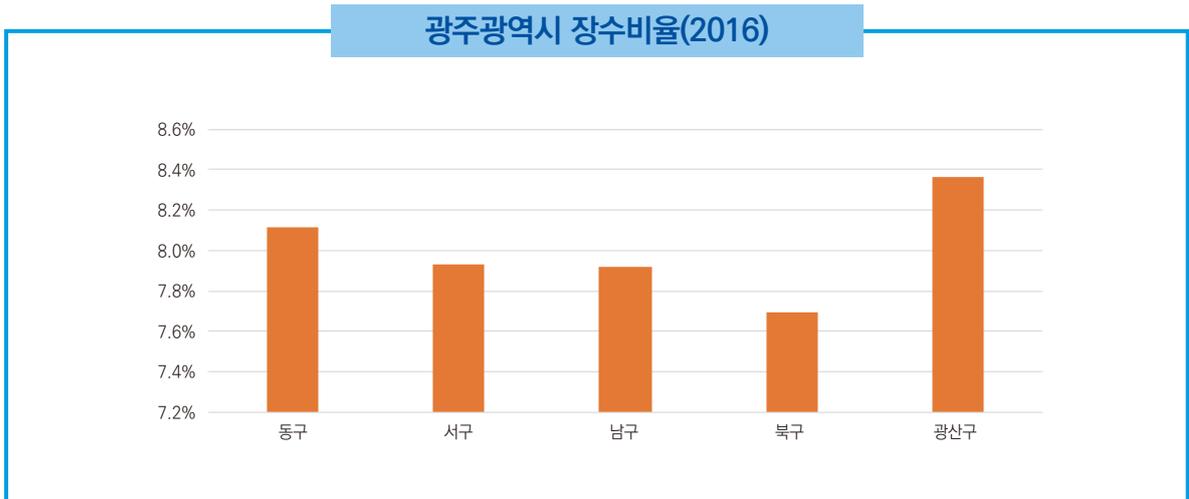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역시 2006년 동구가 11.4%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구 8.7%, 북구 6.9% 순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도 동구가 19.9%로 광주광역시 내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 구별 노인인구 변화(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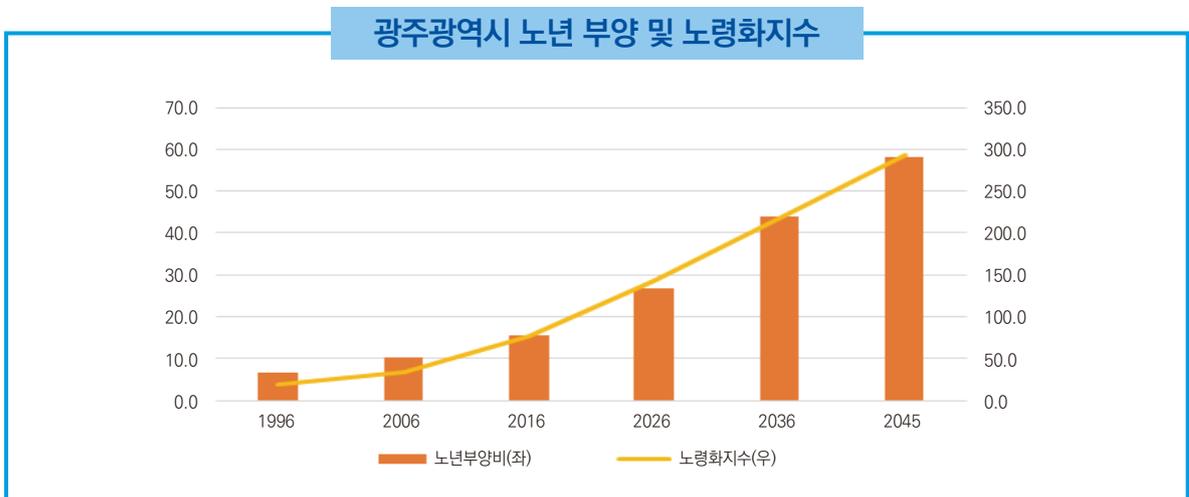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장수비율**

- 광주광역시 노인인구의 장수(85세 이상)비율은 광산구가 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구(8.1%), 서구(7.9%), 남구(7.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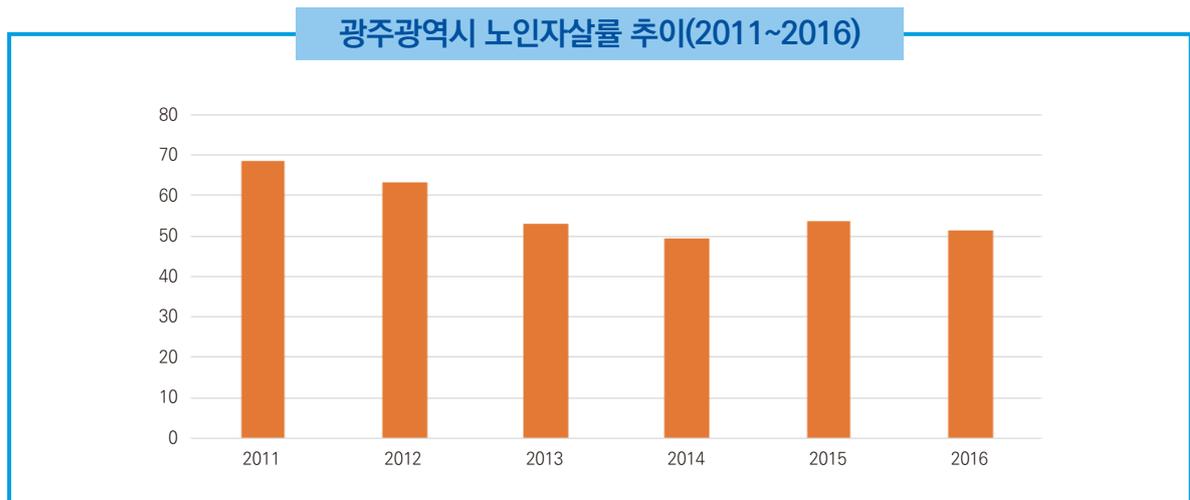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노년 부양 및 노령화지수**

- 광주광역시 노년부양비는 1996년 6.7에서 2016년 16.4를 나타냈으며, 2045년에는 58.2에 달할 것으로 예견됨
 - 노령화지수 역시 1996년 19.4, 2016년 76.8을 나타내, 2045년에는 293.3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광주광역시 노인자살률(인구 십만 명당)

- 광주광역시의 노인자살률은 2011년 68.6명에서 2016년 51.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V. 광주시 인구정책 방향

1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정책 효과 극대화

☑ 통합적 기반시설 정책 수립

- 주거환경, 노동/고용환경, 사회보장/복지환경, 여가 환경 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경향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요의 양이나 내용까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광주광역시 하위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수요를 예측하여, 특히 여성의 활용 가능한 인력의 질과 양에 대한 자료 구축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 가족별, 개인별, 성별 인력 공급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출생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 파악, 고령화 인구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의 발전을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선행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유희시설과 취업교육 관련 시설이 연계된 사회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 양육과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동시적 효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유발되는 효과를 견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유희인력 및 신규 인력의 활용과 제2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체계 활용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여성인력의 사회재교육 및 기능인력 양성체계를 구체화 필요
-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기초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유희시설을 교육시설 및 아동 탁아시설로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취창업 정책 추진으로 사회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이를 활용하여 여성과 노인을 재교육하여 양질의 인력으로 사회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역에서 보장해주는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광역시 차원에서 활용하여 출산이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
- 특히, 65세 인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
 - 즉,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인구의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과의 연계, 인적자원 수입이 아닌 광주광역시 지역 내 자체 활용을 위한 방안 설정이 필요
-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광주광역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지역 광주광역시로의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생활서비스의 재창출이 필요하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생률 증대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생활서비스 전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 문화, 보건·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요 기능을 확대 및 통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특성의 유형화를 통해 필수서비스 및 선택서비스의 선정 및 개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 필요
 - 생활서비스 수요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부처 및 민간 단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정주환경이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 활용이 필요
-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 건설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여가 선용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자층의 정확한 생활서비스 수요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여성 및 유출 인구에 대한 잠재능력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

그램의 개발과, 여성과 아동의 생활 및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시설 간의 기능의 중복성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설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공급에서의 협력이 요구됨

2 보육과 일자리의 양립

✓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보육 기간 동안 현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활동 단절이 여성의 활동 전문성을 약화시켜서 사회의 중요한 경제활동인구로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의 여성은 보육과 사회활동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 앞으로 닥치게 될 초고령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함
-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육아와 소득창출에 대한 이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광주광역시 내 자녀 보육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재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대안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의지 피력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전업주부의 보육역량을 개인적 역량에서 사회적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원활히 함과 동시에 전문적 경력 배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광주광역시 인구증가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은 산업·경제부문이 취약하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인 과제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비해 열등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도모
- 더불어, 일자리공급과 함께 자족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의 서비스 공급 필요
-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공급책 마련, 장기적으로 향후 일자리의 자생적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형 인큐베이터 설립을 통해 일자리 교육 및 교육 이수자를 활용하는 교육의 선순환 과정이 필요

✔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

- 저출산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를 야기하는데, 이민은 중단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유지 혹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각국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대체이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을 주장하는 측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광주광역시의 정책마련이 요구됨
- 반면, 이민을 통해 부양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공하며, 캐나다에서는 이민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고령화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과 더불어 다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함

3 고령친화 환경 조성 및 대체이민 확산 대응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론적으로는 지역의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지역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 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토대의 구축이 가능
- 고령친화적 환경은 세대 통합적 가치 구현을 통한 시설 리모델링과 같은 하드웨어 차원의 환경 조성 and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리모델링과 같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환경 구축으로 양분될 수 있음
- 고령친화적인 시설 리모델링은 고령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차적인 접근방법으로써 고령층의 연령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구민회관, 시민회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고령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은 프로그램 리모델링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결정됨
- 이를 통해 고령자층을 고려한 시설 및 프로그램 리모델링으로 다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유희 인적자원의 활용과 기존 시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체이민에 대한 인식 확대

- 세계 인구추계 1998년 개정판의 중위추계를 토대로 2050년까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 나라의 대체이민 규모를 추정
- 향후 몇 년 동안 출산율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선진국가들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출산력 변동의 낙관적 시나리오도 잠재부양비의 역전을 가져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 간 또는 국제인구이동만이 인구감소나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부분적으로 저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은 인구감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현재 수준의 이민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한 총 유입인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유입인구 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

-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은 대체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재정력 변화, 성장 변화, 소비 및 임금 변화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화되는 것이 필요
- 또한, 잠재부양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상한선을 현재의 64세에서 상향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4 인구감소 정책 수립을 위한 근원적인 현상 파악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향상

-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상쇄요인 혼재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 필요
- (질적 수준을 고려한)이민 정책 추진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민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상쇄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

✓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경주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전될 경우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인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노력 경주
- 현재 제시된 교육은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구가 감소될 경우에도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토대를 근본적으로 만드는 역할 이해가 필요

✓ 세대간 이동이라는 관점에서의 저출산고령화 이해 필요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세대 간 자본 이동으로 인한 과저축이 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점임
- 반면, 인구정책에 대한 한시적인 문제점 도출과 단기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특화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정책이슈리포트

